

# 6월 오감만족 웹 세상...광주 웹콘텐츠 세계로 뻗는다



‘제1회 광주 세계웹콘텐츠 페스티벌’ 6월 23~26일

‘잘 만든 웹콘텐츠 하나가 열 콘텐츠 안부럽다’ 광주 출신 윤태호 작가가 그린 웹툰 ‘미생’은 잘 만든 웹콘텐츠 하나가 폭발적인 파급력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성공모델이다. 2012~2013년 다음웹툰에 연재된 ‘미생 시즌1’은 단순 만화 취급을 받았을 예전과는 달리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젊은층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드라마로 영역을 확장하며 중장년층 공감을 이끌었고 만화책은 판매량 200만부를 돌파하며 저력을 과시했다. 스마트폰 보급과 정보통신 기술 발전이 맞물려 한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진 웹콘텐츠 관련 행사가 없는 상황에서 ‘제1회 세계웹콘텐츠 페스티벌’이 광주에서 개최된다. 광주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할 세계웹콘텐츠 페스티벌을 미리 살펴본다. <편집자주>

포럼·전시 최신 동향 한자리에...개인 창작자·기업 투자 활로  
미생 윤태호·강풀과의 만남...가상현실 스포츠 체험·BJ공연도

‘광주 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은 ‘웹툰, 세상에 포효하라’를 슬로건으로 오는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다.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6월 23~26일) 기간에 맞춰 열리는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총 10억원(국비5·시비5억원)을 투입해 웹툰, 웹드라마, 웹소설 등 전 세계 웹콘텐츠 창작의 중심에 서 있는 열정적인 크리에이터를 비롯해 MCN(Multi Channel Network) 협회와 관련 기업 등이 모두 모이는 축제의 한 마당이다.

콘텐츠 창작자들과 이용자들이 상호 교감할 수 있는 ‘상상웹툰터’, ‘창조플레이존’, 웹콘텐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체험용 ‘전시회’와 ‘컨퍼런스’와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즈매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들로 구성되어 웹과 앱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문화의 트렌드를 공유할 수 있다.

터 멘토링은 유명 크리에이터와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후배들간의 교류의 장이다. 웹툰이나 개인방송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창작 생태계 현황과 업계 동향, 향후 전망 등에 대한 후배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그밖에 인기 BJ와 광주지역 밴드, 음악 동아리 팀들이 참여하는 풍성한 무대공연도 준비된다. 페스티벌 기간 오후 7~9시 야간광장에서 여름밤 관람객 흥을 돋울 예정이다.

◇창조플레이존  
다양한 웹콘텐츠 프로그램을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오감만족의 공간이다. 세부적으로는 웹툰 난장판, 웹툰 극장, 광주 e-스포츠대회, WAF(Web Animation Festival) 체험·홍보관으로 운영된다.

웹툰 난장판은 웹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이다. 사인물(피켓)과 음악으로 불거리를 제공하는 웹콘텐츠 사인 스피닝 퍼포먼스와 VR레이싱이 마련된다.

웹툰 극장은 해외초청작, 한국 초정작 등 장르별 인기작품 5편을 선정해 상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튜브와 함께하는 뷰티라운지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메이크업 교실을 개최한다. 또한 광주 e-스포츠대회와 올해 12회를 맞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최 ‘WAF’ 체험·홍보관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페스티벌 캐릭터나 WAF 캐릭터를 활용한 포토존 등 디지털 플레이존을 통해 관람객의 참여와 체험, 또 다른 재미를 유도할 예정이다.

◇전시회 및 컨퍼런스  
웹콘텐츠 현황과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와 컨퍼런스도 개최된다. 크리에이터와 관련 기업들이 마련한 전시장을 통해 관람객은 세계적인 흐름과 기술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미생>



오는 6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이 열린다. 사진은 캐릭터 그리기 체험.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추진위 제공>

## ‘마지막 노다지’ 웹콘텐츠...“광주가 전진기지 될 것”

김택한 추진위원장 인터뷰

“웹콘텐츠는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개발가능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정보통신 기술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우리나라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웹콘텐츠 페스티벌 개최를 계기로 광주가 웹콘텐츠 전진기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6 광주 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추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택한(58·사진) 위원장은 웹콘텐츠 분야의 시장성과 가능성을 일찍 확인했다. 웹과 앱 콘텐츠의 주요 장르는 웹툰, 웹소설, 웹드라마, 웹애니, 웹다큐, 웹엔



터테인먼트, 웹광고인데, 이 가운데 웹툰, 웹드라마, 웹소설 분야의 산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웹콘텐츠 시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며 드라마와 음악에 이어 새로운 한류 영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은 동일한 문화권으로 감성을 공유할 수 있고 한류상품의 소비가 높기 때문에 이번 페스티벌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이번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참여형 페스티벌이다.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웹콘텐츠를 선도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그는 “청년을 대상으로 ‘인재양성 겸 창작자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할 생각이다”며 “‘인 창작자’ 등 크리에이터(creator)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현장체험 제공과 멘토 연결, 창작교육 등을 지원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창사 64 주년

### 소통의정 열린의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생한 의정극현

대부분 새 국보!

정읍시의회  
www.jcc.or.kr